

진/한대의 국가체제

중앙집권체제의 시행 및 유교 사회의 이상과 현실에 관하여

20200422 이수빈

앞 장에서는 군현제와 봉건제에 대하여,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유교적 이상사회와 당시 현실과의 괴리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진/한 왕조가 성립하기 전까지 상/주 왕조는 봉건제를 채택 및 발전시켜왔다. 봉건제란, 수도와 일부 요충지만 중앙에서 직접 통치하고 다른 지방에는 왕의 친인척을 주로 제후로 임명하여 다스리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주나라 건국 당시 시행하던 씨족제도와 종법질서를 바탕으로 한 정치 제도이다. 넓은 영토의 각 지방에 통치자를 배치하여 효율적인 간접통치를 시행하면서도 제후 임명 방식을 통해 개국공신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제후들에게 지방 통치의 실권이 있었다는 점에서 봉건제는 지방분권적이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왕과 제후들 간의 혈연적 관계가 멀어지고 제후의 통치권마저 세습되면서 봉건제의 치명적인 단점이 드러났다. 세습을 통해 영주들은 해당 지역을 영구 통치하며 권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사람들은 멀리 있는 왕보다 가까이 있는 영주를 따르면서 제후국은 사실상 독립국에 가까워졌다. 실제로 제후들은 자신의 통치 실권을 이용해 '제후국'을 진짜 '국가'로 만들었으며 그로 인해 춘추전국시대라는 분열기가 찾아왔다. 또 다른 단점은, 중앙에서 각 지역들에 깊게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만의 각종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봉건제라는 지방분권제도는 중앙 정부의 독재를 방지하고 각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통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지역별 부조리가 팽배한다고 해도 중앙 정부에서 그것을 통제하기 어려웠으며 제후들은 세습을 통해 각자의 지방에서 독립적인 권력을 중앙 정부 이상으로 강화해갔다.

이러한 실패를 겪고, 춘추전국시대와 진, 한 왕조에서는 매우 중앙집권적인 군현제를 도입했다. 군현제란 행정 구역으로 군과 현을 설치하고 황제가 직접 임명한 행정관이 이를 다스리는 형태다. 기존의 봉건제와 가장 다른 점은 첫째, 친족이나 공신이 아니라 임기가 정해져 있는 행정관을 파견하였다는 것과 둘째, 세습이 불가하였다는 것이었다.¹⁾ 이 두 가지 제도상 특징을 통해 진/한대에는 중앙 정부가 전국의 지방을 통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황제가 관리를 통해 지방의 말단까지 직접 통치할 수 있었으며, 주나라의 봉건제처럼 혈연적 유대관계에 의존하지 않아도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중앙집권제도 단점이 존재하였다. 관리들이 지방이 아닌 중앙 중심의 정책을 세움으로써 지방의 인심을 잃을 수도 있고, 중앙에서 파견된 행정관과 기존의 지방 관리들 간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행정관은 정책을 의도했던 대로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을 황제가 모두 통치하기 때문에, 조정의 실권자가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면 견제를 수 없이 전국으로 퍼지기 때문에 중국 전 지역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진, 한 왕조는 중앙집권적인 군현제 덕분에 통일국가를 분열위기에 내몰지 않고도 중국의 전 지역을 모두 다스릴 수 있었으며 수차례의 외세 침입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왕권과 단결된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1) 위키백과, “군현제”, <https://ko.wikipedia.org/wiki/%EA%B5%B0%ED%98%84%EC%A0%9C>

한 대의 국가 통치 이념인 '유학'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경제는 모두가 경제적으로 평등한 자립적 소농 사회로, 현대의 사회주의 · 공산주의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는 이상일 뿐, 현실의 유학자들은 대체로 상인층과 진보적인 사회변화를 적대시하였으며 보수적, 기능론적인 면모를 띠었다. 따라서 한에서는 이러한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가 존재했다. 한대의 유학자들은 당시 집정자들이었기 때문에, 상인층이 초래하는 사회변화를 꺼려하고 두려워했다. 이는 마치 집권자들이 권력을 잃고 싶어하지 않아서, 변화를 초래하는 진보층을 억제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보수적인 성향이 물론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인간으로서 당연한 심리이며,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수적인 성향을 띤 계층과 진보적인 성향을 띤 계층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 또한 당연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유학자들은 유교적 이상사회를 실현하기보다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유학이 현실에 타협한 대표적인 예로는 동중서의 춘추공양학을 들 수 있다. 당시 한은 진의 폭정을 없애는 명분으로 성립된 왕조이기 때문에, 법가와 대립되는 유가가 통치이념으로 가장 적합했다. 하지만 법가가 법치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과 반대로, 유가가 덕치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이 가장 문제였다. 덕치주의만으로는 국가 전체를 다스리기에 현실적으로 무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무제는 동중서가 제안한대로 춘추공양학을 접목시킨 유교를 관학화했다. 여기서 춘추공양학은 '하늘과 인간은 서로 교감을 하기 때문에 황제가 정치를 잘 하면 하늘이 상서로운 징조를 내려주고 잘못하면 재앙을 내려준다.'라는 이념을 가진 학문이다. 이를 통해 유교의 이상과는 반대되지만 법에 의한 지배를 실현할 수 있었고, 통치이념으로써의 유교를 바탕으로 한 현실 정치가 가능했다.

사실 이러한 현실과의 타협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것이 왕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학문을 관학화할 이유가 없으며, 나라의 통치이념이 아닌 하나의 학문이나 종교로 남는 것이 맞다. 따라서 유학의 핵심적인 이념은 유지하되 춘추공양학과 같은 다른 사상을 접목시키는 것은 왕권 유지에 필수적이었다. 또한,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을 추구하는 것도 한 나라의 군주로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유학의 이상대로 모두가 경제적으로 평등한 자립적 소농사회를 구축하려면, 우선 기득권층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기득권층은 당연히 그 변화를 반기지 않을 것이고, 유교적 이상사회 구축을 위해 기득권층을 적대시하기에는 황제로서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자칫하면 이상사회를 꿈꾸다 오히려 반란과 같은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무제는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 전체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래도 유학은 여전히 한의 통치이념이라는 점이다. 유학의 이상이 현실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관학화를 한 것이다. 유학의 이념은 한의 사회적 질서 안정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됐는데, 당시 한의 향리사회는 연장자를 중심으로 한 자치적인 질서, 즉 확대된 가족질서의 형태였다. 유학 또한 가족윤리를 근거로 삼는 사상으로, 사회 현실과 유교 이념의 사고방식이 일맥상통했기에 일반 백성들이 유교를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이 적었다. 따라서 유교는 당시 사회 질서의 근거를 제공하고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사회 안정화에 기여했다.

결론적으로, 유교적 통치 이념은 한 대 사회에 가장 적합한 사상이었지만 몇몇 이상들은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한무제는 춘추공양학을 접목시키는 등 타협적인 방법을 찾았고, 유학자들은 그에 따라 현실적, 실용적인 유학을 추구하게 되었다.